**제6강 기드온, 삼손, 룻 (사사 시대)**

**1. 사사 시대 배경 이해**

1. 여호수아 세대의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은 나라의 3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 모든 것을 이루었음.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2.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아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사사 시대의 삶이어야 했으나, 실패하였다. 🡪 왜? **불순종**
3. 가나인 거민을 다 쫓아내지 않음: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옭아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사사기 2:1-3)
4. 신앙 교육의 부재: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사사기 2:10)
5. 죄의 악순환: 이스라엘의 타락 🡪 외세의 침략 🡪 이스라엘의 일시적 회개 🡪 구원자로서 사사의 등장
6. 사사기의 결론: 자기 소견 대로 함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보여줌: 미가의 신상과 레위인 첩 사건),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사사기 21:25)

**2. 기드온 (사사기 6-9장)**

1.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 (사사기 6:1-5)
2.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과 동굴의 도피처를 마련.
3. 씨앗을 심을 때 처들어와서 땅을 망쳐 놓으며 가축을 노략질해 감. 🡪 하나님께 울부짖음
4. 사사로 부름 받은 기드온 (사사기 6:11-40)
5.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기드온을 부르심. 🡪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사사기 6:12)
6. 기드온의 주님의 천사에 대한 항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입니까? 주님의 천사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기드온을 부르신다고 이야기 하심. 🡪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사사기 6:14)
7.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어냄
8. 300용사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침 (사사기 6:33-8:21)
9. 미디안, 아말렉,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거너와 이스르엘 평지에 진을 쳤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기드온이 전쟁을 준비: 전쟁 승리의 확증으로 양털 뭉치 기적을 요청함.
10. 3만명의 징집된 군사들 중 300명을 승리를 위한 군사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심: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사사기 7:5)
11.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미디안 연합군에서 어떤 사람의 꿈 이야기 🡪 “기드온이 그 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사사기 7:13-14)
12. 나팔을 불고, 빈 항아리를 깨뜨릴 때, 미디안 연합 군 진영에서 서로 칼로 치며 자멸함. 전투 승리 후 끝까지 추격하여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함.
13. 전쟁의 승리 이후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거절함. 🡪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사사기 8:23)
14. 기드온 가문의 비화
15. 기드온이 사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고, 기드온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음 🡪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 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여룹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사사기 8:23-35)
16. 세겜의 첩을 통해 얻은 아비멜렉의 잘못: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나, 자체 분열로 비참하게 죽음.

**3. 삼손 (사사기13-16장)**

1.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블레셋의 통치 가운데 삼손의 출생
2. 40년 동안 블레셋의 다스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주셨다.” (사사기 13:1)
3. 단 지파의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 “그 때에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네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 중략 ···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사사기 13:2-3, 24)
4. 삼손 vs. 블레셋
5. 삼손의 블레셋 여인과 혼인 (사사기 14-15:8): 블레셋 여인과의 혼인은 수수께기 사건 때문에 틀어져 버림. 🡪 삼손은 보상을 위해 블레셋 아스글론 지역에서 노략하고, 이 블레셋 여인이 다른 사람과 혼인 하면서 이에 대한 복수로 여우 300 마리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망처버림, 또 이 사건 때문에 블레셋 여인과 아비를 불로 태워 죽인 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임. 🡪 삼손의 개인적인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숨은 뜻을 가지고 계셨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사사기 14:4)
6. 당나귀 턱 뼈로 블레셋 사람 1,000 명을 죽임: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으로 유다 지파 사람 3,000 명이 삼손을 잡기 위하여 에담 바위로 찾아와서 삼손을 결박한 뒤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줌. 주님의 영이 임한 삼손은 당나귀 턱 뼈로 블레셋 사람 1,000 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둠. 이후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냄.
7. 삼손과 드릴라
8. 소렉 골짜기기의 드릴라를 사랑함: 블레셋 통치자들에게 매수 당한 드릴라에게 속아 나실인의 비밀을 누설함. 🡪 비참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감.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사사기 16:21)
9. 삼손의 복수: 다곤 신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여 힘을 얻고, 신전의 두 기둥을 밀어 무너트림. 🡪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사사기 16:30)

**4. 룻 (룻기)**

1. 룻기의 개요
2. 혼란스러운 사사 시대,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한편의 이야기.
3. 모압 여인의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며,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됨. 🡪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마태복음 1:5)
4. 룻과 나오미
5.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출신의 엘리멜렉/나오미 가정이, 기근으로 인해 모압 지방으로 잠시 이주하였고,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얻음.
6. 엘레멜렉과 두 아들이 모두 죽어, 집안에는 여인들만 남음. 나오미의 권유로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떠나지 않고 나오미 곁에 남음. 🡪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겨레가 내 겨레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룻기 1:16, 룻은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다!!
7. 룻과 보아스
8. 룻은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됨. 🡪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웠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룻기 2:1),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9. 보아스는 룻을 매우 좋게 보았음. 🡪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
10. 나오미의 조언: 엘레멜렉 집안의 집안간 이며, 성품이 좋은 보아스를 룻과 결혼 시키기 위해 보리 타작 후 기분 좋게 마당에 누어있는 보아스 발치 밑에 누워있으라고 이야기함. 🡪 보아슨 다시 한번 룻의 아름다운 성품에 반함.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오.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 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 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오.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룻기 3:10-11
11. 보아스와 룻의 결혼 🡪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됨.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12.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사랑하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 들이며 성숙하며 순전한 삶을 살 때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림. 🡪 한 사람의 신앙의 결단과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시는가?